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난날 28일 개최된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자문이 주축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활동회가 후원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숙자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에 앞장서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민원 현장 방문을 꾸준히 이어가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이끌어 내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NH농협 남원지부, 남원시 제휴카드 적립금 전달**

남원시는 4일 NH농협 남원시지부가 2025년도에 사용한 남원시청 제휴카드 적립금 8,430여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적립금은 남원시와 농협 제휴카드사 간의 협약을 체결해 발급한 남원시 복지포인트 카드, 법인카드, 보조급 카드 사용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한 것으로 농협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9억8,500여만 원을 남원시에 전달해 왔다. 남원시는 시 예산으로 자출되는 물품 등 소모성 경비 지출에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당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카드 이용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반부패·청렴 서약식 개최**

전주교육지원청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열고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영제교육원 시청각실에서 2026년 청렴 동행 일상화를 위한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청렴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식에서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또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부당한 요구와 지시를 하지 않으며,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한 직무 수행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서약서에 담겼다. 전 직원은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서약문을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약식 이후에는 '청렴! 퀴즈 타임'이 이어졌다. 직원들이 청렴 관련 법령과 부패방지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채선영 교육장은 "청렴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 속에서 체화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주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동행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 2연패 '쾌거'**

**전북자치도 여자 컬링팀 스웨덴 꺾고 금메달 차지**

전북특별자치도 여자 컬링팀이 2026년 세계주니어 여자 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도 여자 컬링팀이 덴마크 코펜하겐 타른비에서 열린 2026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스웨덴을 14대 7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컬링팀은 예선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준결승에서는 미국과 접전 끝에 6대5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스웨덴을 상대로 초반부터 정교한 슛과 안정적인 전략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점수 차를 벌였고 결국 14대7로 승리를 거두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권영일 감독은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믿어주며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도민과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성원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도민 응원에 힘입어 우리 컬링팀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다시한번 우승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전북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승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권영일 감독은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믿어주며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도민과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성원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도민 응원에 힘입어 우리 컬링팀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다시한번 우승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전북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승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부안 공무원노동조합, 고향사랑 상호 기부**

고창군과 부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상생과 협력이 나섰다. 지난 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상호 기탁식에는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최선례 지부장과 부안군 공무원노동조합 이말순 지부장을 비롯한 양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상호기부제를 진행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상호기부제는 지자체 간 교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군산시 기부를 시작으로 2024년 부안군, 2025년 김제시와 정읍시 등에 기부를 이어가며 지자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은 2022년부터 고창군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인돌 마라톤대회 안전 봉사과 고창천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최선례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지역을 잇는 최선례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지역을 잇는" /고창=김영식 기자



뜻깊은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수는 "최선례 지부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나눔과 상생의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총학생회, 개강 맞이 '천원매점' 개최**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지난 3일 새 학기를 맞아 '전심' 총학생회와 손잡고 '천원매점'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대 구성원 일원의 거리에서 '갓섬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개강을 맞은 재학생들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학생이 길게 줄을 서는 등 현장의 열기와 호응이 뜨거웠다. 이를 위해 총동창회는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행사 예산을 전폭 지원했다. 컵라면과 즉석밥, 고추참치, 김, 보리차 등 먹거리와 칫솔 세트, 볼펜 등 생필품으로 알차게 구성된 꾸러미는 1,000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에 판매됐으며, 준비된 300개의 물품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식간에 품이 나갔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를 넘어 수익금 전액을 전주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선배들의 든든한 지원과 후배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우러져 캠퍼스 안팎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학생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최병선 /김재훈 기자



총동창회장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후배들의 힘찬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모교 발전과 학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에 류이노 총학생회장은 "총동창회의 각별한 내리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자치기구 역시 선배 동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캠퍼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경찰, 올 상반기 승진임용식·전입자 간담회**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동료 직원 전입자 18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승진임용식과 새로운 장수경찰 가족이 되는 전입자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사와 이경훈 경장이 경사로 영예롭게 승진했다. 장수경찰 가족이 된 전입직원들을 위해 빠른 적응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한 간담회도 열렸다. 또한 '의무 위반 ZERO, 청렴 경찰관들'을 위한 전입자 대상 의무위반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장수경찰 가족이 된 것을 직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화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장수경찰의 일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현장 점검**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4일 관내 교직원 연립사택(고창읍 4동, 대신면 1동, 해리면 1동, 총 125세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교육장이 직접 행정지원과장, 총무담당, 연립사택담당자와 함께 연립사택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 교직원들의 주거 여건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공용 공간 관리 실태, 소방·전기 등 주요 설비의 유지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노후 시설 현황과 보수 필요 사항 파악 및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

정읍시의회(의장 박인)는 지난 3일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감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정상철 의원, 고성환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인 세무사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됐다. 결산 감사는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비롯해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해 감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신병호 장수교육거버넌스위원장, 장학금 기탁**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이 추진 중인 '한 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신병호 장수교육거버넌스 위원장(제16대 장수교육장)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장수교육지원청 장학금기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신 위원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곧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신념 아래 장수 사랑과 후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번 기탁에 동참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곧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추영곤 장수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장님의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임실군 지사협, 2026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심민 민간위원장 정학성)는 지난날 28일 임실군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안) 보고 △2025년 연차별 시행 결과 평가 보고서(안) △2026년도 읍·면 마을복지 계획 및 특화사업 추진 계획(안) 심의·의결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은 함께 만들고 당당하게 누리는 행복한 임실'을 목표로 8대 추진전략과 8개 세부사업, 중점추진 7개를 시행한 결과 115%의 목표를 달성했고,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3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2026년 읍·면 마을복지계획 및 특화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 보호체계 구축, 계절별 맞춤형 52개 읍·면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초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역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함께 만들고 당당하게 누리는 행복한 임실'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임실=진홍영기자